



박소현의 섹.시.토.크

액의 키스는 안녕하십니까?

“니들은 키스 자주하나?”
밥을 먹다 말고 친구A가 던진 질문이었다. ‘이 집 수육 맛 죽인다.’ ‘김치는 또 어쩜 이리 잘 익었나?’는 말들이 정신없이 오가던 중 뜬금 없이 나온 말에 식탁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다.

“누구랑?”
그 침묵을 깬 것은 친구B의 농담이었다.

“갑자기 키스는 왜? 입이 찢어져라 수육 싸 먹다보니 키스하고 싶어졌어?”

“어제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읽은 게 떠올라서. 결혼 5년 된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랑 키스해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야. 뾰뽀 말고 제대로 된 키스. 그런데 거기 달린 리플들을 보니까 다들 가끔 뾰뽀는 해도 키스는 거의 안 한다지 뭐야. 그래서 니들도 그런가 궁금해서.”

수육을 집던 것자락질은 한산해졌지만 다들 입만 쪽쪽 거렸다 대답을 사린다. 그러나 결국은 고백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은 하는 편이야.”

“나도 뾰뽀는 자주하는데 키스는 자주 안 하는 것 같아.”

“부럽다. 나는 뾰뽀도 언제 했는지 기억 안 나.”

“아, 나는 서로 눈보고 이야기한 게 언젠지 모를 정도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리플 평균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아니 더 나쁘다고 해야 하나?

“너는 키스 자주 하나보지?”

한 친구가 키스 이야기를 꺼낸 A에게 질문을

넘겼다.

“자주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일주 일에 한두 번은 하는 것 같은데.”

“가만있어 봐. 일주일에 한 두 번 키스를 한다는 말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섹스를 한다는 말 아냐?”

B의 발언에 모두 귀를 풍긋한다.

“왜 그런 계산이 나와?”

“섹스 하면서 키스하는 거 아냐?”



지 않는 부부 쪽에 있는 친구들은 순식간에 지혜를 구하는 얼굴이 되었다.

“니들 연애할 때 키스 많이 했잖아. 그렇게 그 낭 서로 눈빛이 통할 때 하는 거지.”

뭔가 대단한 비법이라도 기대했던 친구들, 이번에는 실망한 표정이 대세다.

“나는 내가 정말 연애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우리 남편은 내가 지긋이 바라보면 눈길을 피

“한번 입술이 부르트도록 했던 키순데...”

“결혼 5년차 이상은 뾰뽀만 해도...”

“이 나이에도 키스하면 웬지 설레더라”

“설렌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한데...”

“아닌데? 섹스하면서 하는 키스는 뻬고 계산한건데?”

아주 잠깐, 빙정 상한 표정이 모두의 얼굴을 지나간 뒤, 이번에는 다소 의아한 표정이 찾아들었다.

“그럼 평소에 그냥 아무 일없이 키스를 한다는 거야?”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조장하면 되나?”

홍해가 갈자기 순식간에 평소에 키스하는 부부와 키스하지 않는 부부가 갈라졌고, 키스하는

해. 죄 지은 게 많나봐.”

“나는 내가 괴하는 편이야. 담배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내가 하기 싫어. 옛날엔 어떻게 했나 몰라.”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지만 어쨌든 키스는 아주 먼 나라의 유물처럼 아득한 그 무엇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섹스를 하면서 통과의례처럼 하는 키스가 그나마 키스의 명분을 약하게 이어가고 있었고, 그마저도, 그러니까 섹스를 하면서도 키스는 하지 않는다는 친구도 많았다.

“예전에 친정엄마가 평생 키스 한번 안 해보고 애를 다셨거나 낳았다는 말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 말도 이해가 가.”

“그러게. 한때는 입술이 부르트도록 했던 키슨데, 요즘은 입이 부르트 일이 없네.”

이렇게 한탄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키스 그거 좀 안 하고 살면 어때? 결혼 5년차 이상은 뾰뽀만 해도 아무 문제없어.”

제 대대로 기준을 정해버리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대세는 역시 ‘하고 살아야 한다’였다.

“뽀뽀는 애하고도 할 수 있지만 키스는 다르잖아. 키스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뿐인데, 그만큼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서 봐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하기도 하고, 나이 들수록 섹스만큼, 아니 어쩌면 섹스보다 더 중요한 건지도 몰라.”

“하긴, 이 나이에도 키스를 하면 웬지 설레더라. 섹스할 때도 못 느끼는 설렘을 느껴.”

“설렌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한데...”

얼심한 수육을 먹다 갑자기 키스 토큰장으로 바뀌어버린 점심, 하지만 각자 키스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있었다.

회사로 혹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악속했다. 오늘은 꼭 남편과의 키스를 시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성공한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육을 쏘기로. 〈연애칼럼니스트〉

검색정정 키워드

검색

‘텔미 전라도 버전’은 언제쯤...

‘여러운 것 같은데 친구들은 쉬웠다고 한다. 내가 시험을 뜯 본걸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이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역별 난이도를 알아보거나 정답을 확인, 다운로드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으면서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원더걸스의 ‘텔미’를 따라한 ‘텔미 제주어 버전’도 화제가 됐다. 설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텔미 UCC 중 네이티즌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작품으로, 13명의 대학생이 제주 전통의상인 갈옷 등을 입고 나와 표준어 가사를 제주 방언으로 바

꿔 부르는 것이 특징. 예컨대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는 ‘이녁 날 좋아도 화제가 됐다. 설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텔미 키스’로 바꿨다. ‘꿈이 아니라고 말해 말해줘요’는 ‘꿈이 아니엔 꿀아~꿀아줍서’로 바꿨다.

텔런트 명세빈(31)의 남편 강호성(43) 변호사도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의 행정소송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았고 지난 5월 깜짝 결혼 발표로 많은 화제를 낳은 정선희(35)·안재환(35) 동갑내기 커플도 오는 17일 열리는 비공개 결혼식을 앞두고 행복 모습을 공개, 검색어에 올랐다.

이외 KBS ‘미녀들의 수다’에 새로 등장한 우즈베키стан 자필라도 화제가 됐고, 전 KBS 아나운서 노현경(28)씨의 이혼설 해프닝 등도 네이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지기자 dok2000@

바둑 소식

부안 여류기성전 20일 개막

한국 바둑의 대부 조남철 국수의(1923~2006) 고향인 전북 부안에서 전국 규모 바둑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제2기 부안 여성기류전’이 20~22일 부안여술회관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투이 나 이웨이와 박지은, 김혜민 등 국내 최고 여류기사 8명이 참가한다.

이어 24~25일 옛 부안동초등학교에서는 ㈔대한바둑연맹과 대한초등연맹의 주관으로 ‘조남철 국수배(杯) 전국여인기리 바둑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전국의 바둑 꿈나무 600여명이 참가해 최강부와 유단자부, 각 학년별 대국을 치른다. 〈윤영기자 penfoot@

89. 서남권 경제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공항 개항은 지난 1999년 12월 착공식을 거친 지 8년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무인국제공항 | ② 김해국제공항 |
| ③ 청주국제공항 | ④ 대구국제공항 |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6일(음 10월 7일 甲寅)

子 36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즐거워지는 경기가 있다. 48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60년생 모든 외행을 자제해보자. 72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균형적인 통증은 불가능. 84년생 독신자는 외출 하라. 〈행운의 숫자: 13, 40〉

丑 37년생 중간인의 음모를 살펴보라. 49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 61년생 원한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73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85년생 자기 일을 뒤틀어보기로 점검할 필요. 〈행운의 숫자: 19, 42〉

寅 38년생 큰 고통은 없다. 50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금진하지 않아 좋다. 62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품을 수 있다. 74년생 옛 걸로 돌아서 가고 우선 만족에 들플지 말고 신중하다. 〈행운의 숫자: 20, 16〉

卯 39년생 않은 자식 찾은 듯 기쁘니 허망할 수도 있다. 51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실리를 접검하자. 63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75년생 산뜻한 새 것으로 길사가 있으나 후회를 대비하자. 〈행운의 숫자: 24, 41〉

辰 40년생 자식과의小事에小事를 성립할 수 있고 아랫사람으로 인한 소송이 나타날 수 있다. 52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온다. 64년생 금하게 서두르지 마라. 76년생 시기상조이나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01, 31〉

巳 41년생 낮은 곳에 올 것 같아 불편하다. 53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65년생 시기상조이나 숨통이 터진 경우로 자리를 무리리라. 77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헤쳐나라. 〈행운의 숫자: 18, 43〉

午 42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은 수는 없다. 54년생 부친을 찾아뵙고 문인인 사람을 드려라. 66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78년생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인내해야 하라. 〈행운의 숫자: 04, 26〉

未 43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55년생 모든 일에 어려우니 신종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67년생 시기상조이나 종분한 자기 사람을 확보해라. 79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06, 35〉

申 44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접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계방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8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민족하라. 80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되고 귀인이 도래한다. 〈행운의 숫자: 02, 32〉

酉 45년생 데무리 작업으로 외형을 좇아 실리 있는 편은 꼭 접종하라. 57년생 황재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9년생 生氣가 밟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81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3, 44〉

戌 46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2인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58년생 속임수를 예상되나 흥사는 없다. 71년생 집안이 위승충하니 짐작을 앓지 마라. 83년생 혹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관계자 말고 중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10, 28〉

亥 47년생 빛들은 구상만 있으니 신중하게 천하라. 59년생 앞으로 불여자가 예상되나 흥사는 없다. 71년생 집안이 위승충하니 짐작을 앓지 마라. 83년생 혹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관계자 말고 중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22, 43〉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35>

나하오 쟁구워 <12>

한자 이야기 <652>

A: 現在几点?

Xiànzài jǐ diǎn?

시엔자이 지 드안 디안?

B: 现在五点四十五分。

Xiànzài wǔ diǎn sìshíwǔ fēn.

시엔자이 우 드안 쇠시우우 펑!

A: 差一刻六点?

Chà yí kè liù diǎn?

차 앤 케 리우 드안?